

무소속 예비후보자들 당적 변경 잇따라

도내 국민의당으로 변경 등록한 후보자들 17명... 유불리 저울질 움직임도

설 명절 이후 무소속 예비후보자들의 국민의당 당적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자들의 경우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적을 변경하지 않아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 등록한 국민의당 예비후보자수는 17명에 달한다. 지난 5일 대부분 무소속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11일과 12일 이틀간 등록된 인원이

다. 하지만 아직 무소속으로 있는 예비후보는 전체 예비후보등록자 72명 가운데 25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명절 이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해도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시각이 많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는 예산전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야기 당적을 변경한 예비후보들과 비교되고 있다. 일단 당적 변경한 예비후보는 전주완산

갑(강동호, 이기동, 김광수), 완산을(장세환, 한병규), 덕진(김근식, 이산갑(이한수, 고상진), 익산을(김연근, 남원순창(이성호, 이용호, 김원중) 김제완주(김종화, 이문순, 최인희) 고창부안(송강, 이병학) 등 17명이다. 반면 그동안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거론됐던 염운상(완산을), 김호서(완산을), 김정호(김제완주), 나유인(김제완주), 배승철(익산을), 조배숙(익산을), 김상기(익산을) 등은 아직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과거 총선에서도 갑작스럽게 단일화 했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후보들간 물밑 움직임이 있는게 아니냐는 관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다소 억지스럽지만 정동영 전 의원의 행보 등 정치권의 동향을 살피면서 무소속 연대 합류 유불리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당적변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은 다른 후보들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면서 "이달 중순경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신광영 기자

“군산 새만금 지역 사드배치 어불성설”

더민주 전북도당,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군산 새만금 지역에 사드 배치는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사업은 지난 25년 동안 추진해왔던 국책사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미·중 양국간 첨예한 군사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사드를 중국의 턱 밑인 서해안 군산 새만금지역에 배치를 거론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은 물론 한중 경협단지의 사망선고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 9월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은 한중경협단지의 총체적 협의를 하고 올해부터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지원 방안 등 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 나가고 있다”며 “한중 FTA 발표 등 대중 무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서해안, 특히 군산 새만금지역이 갖는 의미는 전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익과 직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입으로만 “경제”를 운운하지 말고 사드 배치로 인해 맞게 될 우리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당 국회의원들은 국방부 장관 면담 등 정부에 군산 새만금지역은 사드 배치의 적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며, 정부의 사드 배치 관련 논의에서 군산 새만금 배치를 검토한다면 법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새만금특별법 본격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이 시행 되는 ‘새만금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 운영케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외에 국토부, 기재부, 농림부, 환경부 등 6개 부처가 새만금 관련 사업을 제각각 추진하면서 사업 조정과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에 따라 부처간 사업 조정 및 통합 등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전북도가 삼각편대를 형성해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에 발의했고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광영 기자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으로 돌입한 지난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관광객들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

남북 대치 첨예... 여야 선거구획정 협상 ‘스톱’

이르면 오늘 쟁점법안 협상 나서... 입장차는 여전 전망 어두워

남북 대치 국면에 따라 여야의 선거구획정 협상도 기약없이 멈추는 분위기다. 여야는 이르면 15일께나 선거구획정을 포함한 쟁점법안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2일에는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보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명부가 오는 24일부터 작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늦어도 12일까지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기준을 넘겨야만 선거법 개정안 통과 등 제반 입법사항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설 연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돌발 변수’가 생기면서 선거구획정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모 언론사와 전화통화에서 “다음주 월요일(15일)쯤이나 돼야 원내수석들 간에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있다”며 주말까지 공식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춘 원내대변인도 통화에서 “엇그제 여야가 만난 이후 상태에서 더이상 진전된 상황은 없다”며 현재까지 예정된 협상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협상을 하더라도 선거법 얘기만 하면 새누리당에서는 영종한 다른 법률들을 전부 걸겠다고 하니 대화가 안된다”고 새누리당의 쟁점법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정 의장 역시 공언했던 12일 선거구 획정 직권 처리 방침을 미루고, 일단 여야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안 연계처리 문제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히 협상 전망 또한 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남북 대치 국면에 따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등에 대해서 선거법 보다 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성주 기자

“현역-정치신인 간 차별없이 공천 심사할 것”

더민주, ‘기득권 없이 공정한 기회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1차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 간 차별없는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더민주 김현태 공관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봤을 때 실제 후보 개인의 자질 심사에 충실하지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앞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중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일반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인물들이 선거에 임해 일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공관위원이 밝힌 회의 결과도 김 대표의 고강도 심사 의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공관위원은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에 대해 어떤 기득권도 없이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총선 때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한 단수공천을 먼저 발표해서 국민의

비판여론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현역을 우선시 하는 그런 심사 일정은 아니라, 현역과 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일정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호남 물갈이 논의 여부에 대해 “특정 권역이나 특정 대상에 대한 범위와 비중을 논의하지는 않았다”라며 “큰 틀에서 봤을 때 실제 후보 개인의 자질 심사에 충실하지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관위와 전략공천위원회의 권한 충돌여부와 관련, “큰 틀에서 보면 당헌당규상 특별히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관위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조율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헌에 전략공천은 당 대표의 권한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이해를 했다. 김 위원은 향후 공관위 일정에 대해 “공천 일정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최소한 당

헌당규상 하는 실사 일정만 해도 빠듯하다”면서 “실사 이후 면접 등 기본적 일정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전북도당 당직자 임명

국민의당 전북도당(김광영 위원장)이 지난 12일 당직자들을 임명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홍무·조직국장과 대변인단등 1차 3국을 구성 임명했다. 사무처장에는 도당총대회에서 선출된 이성일 도의원이, 홍무국장에는 구지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총무국장이, 조직국장에는 채수찬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국장을 지낸 최병철 국장을 수석대변인에는 최인정 도의원, 대변인에는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유선우 군산시의원이, 수석부대변인에는 김병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이 각각 임명됐다. /신광영 기자

저 총선 출마합니다

김정호 예비후보 “농업인 소득 안정화 최선”

국민의당 김정호(완주김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기초식량법’을 제정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무너져가는 농촌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고 농도 전부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밝힌 국민기초식량법 구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현 23%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장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농업농촌의 문제를 논의하고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 실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미FTA에서부터 한중FTA까지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이라는 대외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농업경쟁력 강화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이 처한 위기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이기동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이기동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완산갑)는 지난 13일 평화동 4거리 예담한의원 건물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북정치1번지인 완산갑에서 새로운 정치혁명을 시작한다는 취지에서 북소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및 영상소개, 후보자 인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동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이 전주시민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며 “선거사무소가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오가는 소통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20대 총선아발로 낡은 진보 정치를 청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정치를 열어갈 절호의 기회”라며 “정치혁신으로 제대로 된 정치, 명실상부한 명품 문화도시 전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강팔문 전 익산국토청장, 익산을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강팔문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강 후보)는 지난 12일 오후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강 후보는 “익산국토청장을 역임한 이후 최근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퇴임하고 ‘익산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언론에서는 ‘자신평가를 마법경영’, ‘각고의 노력으로 승기를 잡는 ‘구원투수’”라고 평가했으며 공제회 이사장과 공사 사장 직위를 수행하며 쌓았던 성공경험 노하우와 집단지성을 활용한 아이디어 발굴, CEO로서 훈련된 자질과 품성 등 경력과 성공스토리를 토대로 익산에서 성공스토리를 다시 만들거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익산건설’은 꿈이자 가슴 설레는 도전으로 성공신화를 이루었던 사람이 익산의 성공신화를 다시 쓸 것이다”며 “중·고교 시절 몸과 마음을 열광케 한 근원으로 50여년 부모형제가 살아 온 익산에 새 바람을 일으켜, 떠나는 도시에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클린행정과 시스템행정을 도입해 공직사회를 쇄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국민의당 박기택씨, 익산을 출마 공식화

국민의당 박기택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경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출마선언을 했다. 박 후보는 “인류가 존경하는 마하트마 간디는 난세에는 7 가지 징조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패력’,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그리고 ‘희생 없는 신앙’이 나타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7 가지 모두 해당되지는 않는지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 익산이 난세에 처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살기 어렵고, “정치는 국민을 괴롭히는 행사가 된지 오래입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든든한 국가안보 그리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입법활동에 전력▲정년실업, 중장년의 직업안정, 노인빈곤 그리고 여성의 출산/육아 및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에 앞장서서 ‘한국형 복지모델’ 조성 등 공약을 제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